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October 2013

cartier.co.kr



Paris
Paris Paris

7th Anniversary 7Loves
즐거운 나의 세컨드 하우스
영송 마틴이 제안하는 제주도 웨딩
House of Heritage

Cartier
Paris Nouvelle Vague New Collection

Opening



Four Corners of the World

다 같은 사각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전 세계 곳곳의 작가들은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풀어낼까. 올해 말까지 열리는 그룹전 <세계의 네 모서리>에서 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세계의 네 모서리, 즉 영국, 미국, 중국 등에서 온 작가 7인의 작품을 한데 모아 감상하는 것으로! 프레임은 사각으로 동일하지만 다양한 양식과 상이한 미적 태도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 하이트 컬렉션 갤러리에서의 전시 오프닝 현장. editor 정승혜 photographer 인성욱

1 이번 전시를 큐레이팅한 조나단 왓킨스(Jonathan Watkins), 영국 버밍엄의 아이콘(KON) 갤러리를 운영하는 디렉터로 전 세계 7명의 작가들을 직접 섭외, 기획했다. 2 이번 그룹전에 참여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프리즈(Bernard Frize)와 그가 속해 있는 갤러리 페로탱의 디렉터 엘리스 정. 프리즈는 주로 유화물감에 수지를 섞은 붉은 물감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다. 3 이스라엘 작가 아미카 토크(Amikam Toren)의 작품 앞에 선 큐레이터 조나단 왓킨스의 아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 김순기. 토크는 중고가게에서 수집한 유화 캔버스 직물에 글자를 오려내고 벽에 걸어, 사물과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게 만든다. 4 미술 전시 기획자 최자은. 원앤제이의 갤러리스트 패트릭 리. 하이트갤러리에서 다음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진아 작가(왼쪽부터). 5 중국 작가 장엔리(Zhang Enli)의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중만 작가. 6 전시를 찾은 작가 설원기. 7 주한 프랑스 문화원의 문화 예술 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슌렌 레토.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프리즈의 전시를 보기 위해 들렀다고.